

# 삼성전자 '창사 첫 파업' 고비... 노조 오늘부터 찬반 투표

### 성과급 삭감에 내부 불만 커져 찬성률 이외로 높을 수도 노조 가입률 16%... 파업 홍보 여파로 노조원 늘어날 듯

삼성전자 노조가 18일부터 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최근 성과급 삭감으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불만이 많은 만큼 찬성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파업 투표가 가결된다면 삼성전자가 창사한 1969년 이후 첫 파업이다.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17일 쟁의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표는 18일부터 4월5일까지 진행된다.

만약 이번 파업 찬성 투표가 가결된다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의 될 전망이다

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 찬반 투표 찬성 80%를 목표로 전국 사업장 홍보 선전과 사측 압박 투쟁을 진행한다. 온라인 홍보물 배포에 더해 홍보 트럭과 현수막·대자보·피켓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의 50%가 찬성하면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보장받지만 그동안의 노동운동 역사를 통해 전체 조합원 80%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투쟁에 승리하기 어려움을 배웠다"면서 "잃어버



삼성전자 노조가 18일부터 쟁의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린 노동 존중을 찾기 위해 삼성전자 사측 처음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시작과 함께 1차 홍보 투쟁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월20일 임금 인상을 협의하기 위한 6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청했고 15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평균 급여는 반도체 사업 실적 부진에 따른 성과급 삭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여기에 직원들의 급여가 삭감되는 와중에 삼성전자 임원들은 수십억 원대의 성과급을 챙긴 것이 알려지며 삼성전자 내부에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을 요구한 한 삼성전자 직원은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전 세계 1위를 노리며 구글 같은 글로벌기업과 비교하라는 말을 해 왔다"며 "회사는 구글하고 비교하는데 돈은 맞춰 주지 않으니까 예전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왔는데 성과급 삭감을 계기로 직원들이 의견 표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 삭감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며 1주일 동안 NSEU 노조원이 1612명 증가하며 NSEU 설립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3월15일 11시 기준 노조원 2만1023명의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16%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NSEU가 파업 투표 홍보를 이어 간다면 추가적인 노조원 증가 또한 예상된다. 만약 더 많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노조에 동참한다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상징성이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 '초격차 배터리' 승부수... 불황에도 투자 확대

기업경영 기사도  
⑦ 삼성SDI

글로벌시장 점유율 세계 5위... 시장점유율 확대 관련 올해 6조 원 통 큰 투입... 지난해 비 투자액 35% 확대

전기자 시장에서 수요가 둔화하고 있지만 삼성SDI는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SDI는 업황 부진에도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투자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 통했다... 배터리 부문 실적 7.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삼성SDI의 지분 19.58%를 보유해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 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7.62%)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어드바이저스(5.01%)가 5% 이상의 삼성SDI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SDI는 중형전지·대형전지·소형전지 등의 리튬이온 2차전지를 생산·판매하는 에너지솔루션 사업 부문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각 부문별 매출 비중은 에너지

솔루션 부문이 90%를 차지해 사실상 삼성전자의 2차전지 사업 계열사로 볼 수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삼성SDI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점유율)이 4.8% 세계 5위 수준이다.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업계로 보면 글로벌 점유율 11.4%로 선두 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2위 수준이다. 다만 업계 3위인 SK온(점유율 4.0%)과의 점유율 격차는 0.8%p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삼성SDI는 전년 동월 대비 44.3%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성적이다. SNE리서치는 유럽·미국 등 시장에서 고부가 배터리의 판매가 지속 확대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삼성SDI 경영진 최전방에는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이 있다. 최 사장은 2021년 12월 대표이사 자리에 선임됐으며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이라는 경영방침을 내세우며 내년 3월까지 삼성SDI를

진두지휘한다.

최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업계가 불황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SDI는 지난해 매출 22조7083억 원 영업이익 1조633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7% 감소했다.

다만 사업 부문별로 보면 전자재료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47.5%나 줄었지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솔루션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3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6% 늘었다(7.1%) 늘었다.

"어렵다고 위축되면 안 돼"... 업황 부진에도 공격 투자

양호한 경영 흐름 속에도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배터리 업황 부진·비교적 저렴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가파른 성장세 등은 변수가 될 조짐이다. 심지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변

동될 수 있어 전기차 수요가 크게 뒤바뀔 수 있는 점도 변수다.

그럼에도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업계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중 설비투자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에 동요하지 않고 투자를 이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해 4조 3447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삼성SDI가 전년 대비 35% 늘어난 6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투자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인 1조1364억 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입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삼성SDI 말레이시아 공장을 방문해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최 사장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배터리 전문 전시회 '2024 인터배터리'에서 "자세한 규모를 밝힐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SDI는 최근 울산 및 천안사업장 증설에 나선다. 이미 각 사업장에 대한 건축물 착공 및 시설 증설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공장의 규모를 현재 66만㎡에서 2025년 123만㎡로 2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 LFP배터리 등 중저가형 배터리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를 생산해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현재 양산 중인 각형 배터리(P5)와 비교해 약 40%가량 향상된 에너지 밀도 900Wh/L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양산 준비 계획을 갖고 있다. 독자 조정한 고체 전해질 소재 개선과 혁신적인 무음극 기술을 통해 음극의 부피

를 줄여 양극제를 추가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해 헝가리 공장을 증설하며 신규 수주를 도모하고 있다. 삼성SDI는 헝가리·미국·말레이시아·중국 등 국가에 20개의 법인을 두고 있다.

최 사장은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다양한 폼팩터의 제품 양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초격차 기술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찬 기자 gkim@skyedaily.com

**고품질의 제품을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저희 한아툴스(주)는 1999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상품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톱, 렌치, 커터, 칼갈이, 망치, 타카 등의 공구와 주방용품까지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신조어에 회사의 임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0개국 수출브랜드 한아툴스"**

MADE IN KOREA

www.magicsaw.com

**한아툴스주식회사**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단3로 145(미음동) 한아툴스(주)

TEL : +82-51-714-7200 / FAX : +82-51-323-7990

E-mail : hanatools@hanmail.net